

## 공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2013~2016)

#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EFA)

##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부다페스트 2016
국가	헝가리
참가연도	2016년
참가기간	2016. 6. 2 ~ 6. 8
작가명	김민제

## 레지던스 기관 소개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은 2006년 독일 괴를리츠에서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Atelier for Young Festival Managers)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2013년에는 페스티벌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벨기에 브뤼셀 카이 극장의 창립자이자 전 디렉터인 휴고 드 그리프를 필두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로그래머 조나단 밀스, 아비뇽 페스티벌 전 디렉터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 트랜스아메리카 페스티벌 창립자 마리-엘렌 팔콘 등 내로라하는 공연예술축제 기획자 및 디렉터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아틀리에와 비슷한 기간에 해당 도시에서 주최되는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뽑은 45명의 젊은 축제 기획자들에 워크샵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페스티벌을 만들어나가는 젊은 주체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구축하고 차세대 기획자들에게 새롭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주요 멘토 소개

휴고 드 그리프 (Hugo De Greef): 페스티벌 아카데미 총괄 책임자, 유럽공연예술축제연합(EFA) 전 사무총장, 벨기에 브뤼셀 카이 극장 창립자이자 전 디렉터 로즈 펜톤 (Rose Fenton): 런던국제연극제(LIFT) 공동창립자이자 전 디렉터 조나단 밀스 (Jonathan Mills): 에든버러 페스티벌 예술 감독

##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 참가하기

호텔에 도착하면 7박 8일간 머무르게 될 방을 체크인하고 참가자 등록을 한다. 짐을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정장으로 갈아입고 버스에 올라타 개회식 장소로 이동한다.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의 개회식은 무파 부다페스트(Müpa Budapest 혹은 Palace of Arts)에서 열렸다.

무파 부다페스트는 2005년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간들의 복합체로 2015년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마션>에서 중국의 국가항천국(中國國家航天局)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헝가리 문화예술의 본거지이자 허브를 표방하며 클래식부터 현대음악, 재즈,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의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또한 젊은 아티스트들의 교류와 양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온 독보적인 공간으로서 무파 부다페스트는 아틀리에의 개회식이 열리기에 충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광각 렌즈 없이는 한 프레임에 담아내기 힘든 규모에 기획 당시 20세기 헝가리 건축에 전례 없는 시도였던 이 모던한 건축물의 파사드는 밤이 되자 변화하는 LED 조명에 의해 다양한 색의 빛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개회식은 여느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연사들의 환영사와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EFA 협회장(President) 다르코 브릭(Darko Briek)을 비롯한 페스티벌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환영사가 줄을 이었고 아틀리에의 멘토들 중 한 명인 조나단 밀스 기조 연설이 있었다. 이후 라이브 음악 공연과 함께 리셉션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공식적인 첫 네트워킹을 가졌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페스티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기에 개회식 드레스코드인 정장이 사뭇 어색해보이기도 했지만,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많은 기획자들답게 금세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9시 즈음에 호텔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첫 날의 일정은 끝이 난다.

둘 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6일 간의 세션은 크게 아틀리에 멘토들과 프레젠테이션(페스티벌 기획자 및 디렉터)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식 대담, 참가자들의 페이퍼 발표(페이퍼의 내용을 토대로 짧은 시간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력하는 것으로 피칭의 형태는 아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화두들(Topics of Atelier), 주제별 토의와 사례 공유(Working Session), 호스트 페스티벌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는 아멜 오페라 페스티벌의 주요 배역 오디션 및 워크샵 참가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룹별 주요 문화예술공간(극장, 레지던스, 스튜디오 등) 방문으로 나뉜다. 그 외 미술관 및 공연장 투어와 공연 관람 등 오로지 부다페스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2일째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던 그룹 세션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 최대한 많은 의견과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끔 주제 선정부터 그룹을 나누는 것까지 매번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연예술 뿐 아니라 디자인부터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비전을 가진 참가자들만큼 현재 멘토들의 구성은 좋았으나 (런던의 문학 작가 지원센터 Free Word의 디렉터를 역임한 런던 국제연극제 창립자 로즈 펜톤 등) 참가자들의 토론을 주로 이끌었던 조나단 밀스 에든버러 페스티벌 디렉터의 조연들이 다소 공연예술을 비롯한 특정 장르에 치중되어 특히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나 실내악 위주의 클래식 페스티벌 등에서는 크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든 점도 더러 있었다.

이 중에서도 아틀리에가 행해지는 목적인 동시에 아틀리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세션은 단연 ‘페스티벌에 관한 화두들(Topics of Atelier)’일 것이다. 처음에 주어지는 10여 개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번 멤버 구성이 다른) 세 그룹으로 나뉘어 어떤 것을 더하고 뺄 지 토론하는 것이 사실상 아틀리에의 큰 맥락이며 아틀리에가 끝날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좀 더 나은 일련의 항목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그룹별로 추려낸 것들을 총회의 형식으로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후에도 멘토들과 함께 혹은 참가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아틀리에에서 완성된 버전은 다음 아틀리에에서 또다시 새로운 참가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폐회식은 헝가리국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연사들의 폐회사에 이어 두 명의 참가자가 대표로 이번 아틀리에에 대한 소감과 성취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멘토들이 한 명씩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폐회식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아비뇽 페스티벌의 전 디렉터(예술 감독)인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Bernard Faivre d'Arcier) 경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비록 비공식 참가였지만 작년에 울산의 전통연희단체인 동해누리의 코디네이터로서 다녀온—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후 해외진출 총괄프로듀서로 일하게 되었던—해외 페스티벌이 바로 아비뇽 페스티벌이었기에 그 감회는 오래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참가자들과 멘토들은 헝가리국립미술관에서 그림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만찬을 즐겼고 테라스에서 와인과 함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틀리에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을 경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과 그룹 세션이 이루어졌던 부다페스트 뮤직 센터는 모던한 양식의 건물로 도심과 조금 떨어져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한다. 1층의 콘서트홀 뿐 아니라 워크샵과 같은 부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도서실 등 활용도가 뛰어나다. 실제로 아틀리에 프로그램 뿐 아니라 아멜 오페라 페스티벌 세미파이널 오디션과 5개 협력 극장의 배역 워크샵이 센터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콘서트홀은 클래식 및 오페라 전용 공연장답게 최상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위한 잔향 설계가 돋보인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지원하기

(\*아래 내용은 2015년 9월 당시 페스티벌 아카데미 웹사이트의 2016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 지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아틀리에 지원은 보통 8개월 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 공식 사이트의 News를 통해 공지된다. 아틀리에가 개최되는 도시의 사진과 행사에 대한 개요와 일정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함께 게재되고, 프로그램 세부사항(Program Details) 하단에 지원서 양식(application form)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참가자 선정을 위한 구글 독스 설문조사 양식의 지원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틀리에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므로 문항과 그에 대한 답변 일체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서 양식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시작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태어난 도시와 국적을 적는 사이에 자신이 속한 대륙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아틀리에 초기에는 주최측인 EFA의 지역적 특성상 유럽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매회 타 대륙에서의 참가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는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서 늘 눈여겨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번 부다페스트 아틀리에만 해도 호주와 미국에서 역대 최다 참가자들을 유치했고 아틀리에의 총괄 책임자인 휴고 드 그리프 역시 이를 강조했다. 자신이 소속된 혹은 대표하는 단체 정보까지 입력하고 나면 프로필 단이 끝난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관식 및 서술형 문항들이 나온다. 페스티벌 현장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경험, 교육적 배경(학력)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맡고 있는 직무를 자유롭게 기입하고 나면 아틀리에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이전 아틀리에 지원 여부, 아틀리에를 처음 접한 계기, 아틀리에에서 대표할 지원자의 단체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있는지와 지원 단체 및 기관명, 지원 범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사업의 일환으로 매 아틀리에마다 1명의 참가자에게 참가비와 왕복 항공료가 공식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참가자 선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동기서(Motivation Letter)를 작성한다. 페스티벌의 측면에서 혹은 페스티벌 자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예술적 견해를 서술하면 된다. 선정위원회가 참가자를 뽑는 가장 큰 기준 두 가지가 프로필에서 답변한 문화예술관련 경력과 이 동기서라고 보면 된다. 또한 이 동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틀리에에서의 토의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동기서가 7일간의 아틀리에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언급되지는 않고, 실제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쓰게 될 페이지는 아틀리에 합격 후 별도로 작성하게 된다. 후술.)

EFA 회원 여부를 선택하고 (회원과 비회원은 참가비가 다름) 제출(Submit)을 누르면 아틀리에 참가를 위한 지원 과정의 첫 단계가 완료된다. 제출 기한은 처음 공지되었을 때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혹시 마감을 놓쳤더라도 지원서는 내보는 것이 좋다.

## 준비하기

약 한 달 후 합격 여부 통지가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서 메일로 온다. 합격한 경우 귀하의 지원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틀리에 선정에 대한 공식 문서와 1차, 2차 참가비 지불 요청서가 첨부되어 발송된다. 이 때 참가 확정을 위해 몇 주 내로 선금 €300(유로)를 해외 송금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페스티벌 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식적으로 참가자를 지원하는 관계로 페스티벌 아카데미는 문예위 국제교류부에 합격자 명단을 전달하기 때문에, 메일을 받고 며칠 내로 문예위 국제교류부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와 협의되는 바에 따라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참가비 일체를 페스티벌 아카데미로 한 번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예위 지원 사업의 수혜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면 이 때 선금을 직접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아틀리에에 참가 선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간혹 다른 모듈을 추천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은 필자와 함께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 지원했다가 필자보다 앞서 불합격 통지와 함께 아틀리에에 대한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최근 론칭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과정을 권유받았고 해당 과정에 다시 지원해 합격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틀리에보다 앞선 1월에 벨기에 앤트워프(안트베르펜)에서 첫 번째 모듈이 진행되었고 아틀리에 한 참가자는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저 과정과 부다페스트 아틀리에에 모두 합격하여 둘 다 참가하기도 했다. 두 참가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아틀리에보다 입문자를 위한 과정이라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20년의 경력을 지닌 참가자도 있었다고 하니 아틀리에와 타겟팅을 달리 한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문예위 국제교류부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거나 합격자가 국내에서 본인 1명 뿐인 경우 이 시점부터 참가 직전까지 약 7개월 간 사업보조금을 수령을 위해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학교 재학 및 직장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하 NCAS, [www.ncas.or.kr](http://www.ncas.or.kr)) 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전에 문예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보조금 주관기관 사업 공모에 지원한 적이 있다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NCA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아틀리에 참가비 지원 또한 크게 ‘지원신청’, ‘교부신청’ 그리고 사업(아틀리에 참가)이 종료된 후 ‘정산 및 결과보고’로 나뉜다.

NCAS 시스템상에서 왕복 항공료에 대한 지출예산과 사업성과를 입력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해외레지던스 사업에 맞게 작성한 한글 및 워드 형식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 후 최종적으로 지원 선정이 되면 국제교류부의 안내에 따라 지원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부신청을 한다. 지급받은 사업교부금 범위에 맞게 왕복 항공료를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까지가 아틀리에 직전까지의 과정이다. 지원신청서는 참가 동기와 활동 계획 그리고 기대 성과를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아틀리에 합격자가 여럿일 경우 지원신청서에 차별화된 자신만의 비전이 드러날수록 사업 수혜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같은 해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최우수 활동가로도 선정되어 부다페스트 아틀리에가 끝난 직후 루마니아로 넘어가 2016 시비우 국제연극제 자원활동가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문예위 국제교류부에서 항공료를 지원한다, 2015년 선정자 기준) 시비우 국제연극제의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 기간과 아틀리에가 완벽하게 겹친 탓에 시비우 국제연극제에서 일할 기회를 아쉽게 양도해야 했다. 대신 아틀리에 참가 전 독일 칼스루에 소재 미디어 아트센터인 ZKM에 들러 기획하고 있던 칼럼을 위해 실무자와 인터뷰를 하고 왔었다. 유럽으로의 왕복 항공료를 제외한 아틀리에 전후의 개인 일정에 대한 경비 일체는 본인 부담이다.

문예위 국제교류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지원금 교부를 준비하는 동안 페스티벌 아카데미로부터도 꾸준히 메일을 받게 된다. 항공 예약을 비롯한 여행 준비에 앞서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메일로 참가자 등록 시간대와 보험 유무, 날씨나 환율 같은 도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지한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공식 서류도 페스티벌 아카데미 측에 요청할 수 있고 행사 기간 전후로 추가 숙박 예약(참가자 부담)과 참가자 개인의 종교나 식단 및 건강 상태와 관련한 통지도 이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위에서 언급했던 페이퍼를 영어로 제출하게 된다. 이는 지원서에서 작성했던 동기와와 별개로 새로 써내야하며 분량은 최대 2,000자로 역시 구글 독스를

통해 주어진 데드라인까지 제출한다.

참가자들 각자가 발전시키거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간략히 설명하되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페스티벌의 구성을 기술하거나 기성 페스티벌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도 된다. 프로젝트의 지리적 특성이나 목표로 하는 관객, 페스티벌 개최 빈도 등의 맥락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혹은 기존의 페스티벌에 반영하여 변화시키거나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페스티벌 자체에 대해 무엇이든 쓰라고 한다. 아틀리에에서 각자의 페이지를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토대로 참가자들 사이에 실제로 많은 교류가 발생하므로 메일로 사전에 배부되는 다른 참가자들의 페이지 역시 참가 전까지 미리 읽어가는 것이 좋다.

아틀리에가 다가오면 항공 스케줄(도착 예정 시간)과 아틀리에 가이드에 실릴 증명사진을 송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일정과 참가자 명단 등을 미리 PDF로 받아보게 되는데 지원서 제출 당시의 소속과 달라졌거나 틀리게 기재되어있다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틀리에 참가를 목전에 두고 주어지는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 바로 아틀리에가 시작될 때 단 몇 분간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활용할 어떤 물건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거나 스스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동기부여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며, 자신의 직업 생활 및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보기를 권한다.

## 끝맺으며

무파 부다페스트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필자는 엄청난 인파 속에서 일행들을 놓쳤었다. 워낙 규모가 큰 공간인데다 출발 장소도 따로 공지되지 않아 홀로 우왕좌왕하던 중 다행히 나와 마찬가지로 길을 잃은 멘토 두 분과 다른 참가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나머지 일행들을 기다리던 중 런던국제연극제(London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LIFT)의 공동창립자이자 아틀리에 내내 참가자들과 함께 했던 멘토인 (그리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동경하는) 로즈 펜톤 여사로부터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 전 아비뇽 페스티벌 디렉터 그리고 아틀리에의 A부터 Z를 모두 책임지고 관장한 휴고 드 그리프 경 세 사람의 첫 만남에 얽힌 사연부터 로즈 펜톤 여사가 처음 페스티벌을 만들던 초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래 내용을 공개적인 칼럼으로 쓰는 것에 대하여 로즈 펜톤 여사의 동의를 얻었음을 미리 알린다.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기술함.)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전무했던 당시, 좀 더 실험적인 성격의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었던 로즈는 스물세 살의 나이에 친구 루씨 닐과 함께 페스티벌을 만들기 로 한다. 두 사람 모두 갓 대학교를 졸업한 신분으로 밤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 어렵게 해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갈수록 도와주는 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어느 귀인의 도움으로 공짜로 얻게 된 아파트를 사무공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페스티벌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과 확실한 공동의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로즈는 페스티벌 기획자로서 폴란드의 어느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폴란드 대사관에 직접 문을 두드렸다. 폴란드 대사관에서는 영국문화원과 연계하여 두 사람을 적극 지원해주었고 두 사람은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가게 된 페스티벌에서 한 날은 카페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로즈 여사보다 4년 정도 앞서 페스티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휴고였다. 그리고 이후 무일푼으로 아비뇽 캠핑장에 갔던 로즈와 루씨 닐에 티켓을 제공해준 사람이 아비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었던 베르나르였고, 휴고는 그 해 처음 아비뇽 페스티벌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극을 기획한다. 그렇게 35년 전에 시작된 세 사람의 인연이 지금의 아틀리에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한편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운을 댄 건 사실 베르나르 경이었다. 요즘이야 인터넷을 위시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만, 아비뇽 페스티벌 역시 맨 처음에는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통은 손편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무실에 타자가 들어온 건 시간이 좀 더 흘러서였고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마친 로즈 여사는 말했다. ‘페스티벌 기획자’는 누가 명명하는 게 아닌 자신 스스로 말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두 멘토의 말을 정리하자면 결국 시작하고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젊은 축제 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했고 우리 참가자들은 과연 몇 년 혹은 몇 십 년 뒤에 어떤 관계가 되어있을지 궁금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의 중요한 멘토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조나단 밀스 예술감독은 페스티벌이 온 감각기관을 동원해 느끼는 하나의 체험이라고 말했다. 아틀리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틀리에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큰 그림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참가자마다 경험도 인상도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젊은 축제 기획자들이 페스티벌이라는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논의’와 ‘교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계를 지속해나간다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에서도 현장의 많은 기획자들이 참가하여 아틀리에의 동문(Alumni)으로서 이 발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아시아의 입지를 다져나갔으면 한다.

지금부터는 아틀리에 외에도 페스티벌 아카데미가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보고자 한다. 페스티벌 아카데미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페스티벌을 만들어나가는 젊은 주제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구축하고 차세대 기획자들에게 새롭고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페스티벌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과정의 경우 페스티벌 등에서 활동하는 프로덕션 매니저를 타겟으로 하며, 페스티벌의 미션을 실현하고 예술감독의 입장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는 것에 입각한다. 입문과 페스티벌 현장에서의 실습 그리고 마무리 워크샵까지 3가지 모듈을 최소 1년 이상 수행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 2017년 1월에도 벨기에 안트워프(안트베르펜)에서 첫 번째 모듈이 시작된다. 내년도 과정에 대한 지원은 올해 9월 중순까지 모집했었다. ‘페스티벌 읽기(The Festival Readings, 의역)’는 3일 간의 행사로 페스티벌 현장에서 내로라하는 연사들이 모여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페스티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본 과정은 페스티벌 기간 내 개최되며 페스티벌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먼저 제안해오는 페스티벌의 축조위와 페스티벌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기획한다.

이상 두 과정은 유럽 밖의 타 대륙 참가자의 비중이 아직 현저히 낮다. 앞으로 아틀리에 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도 늘어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과 같은) 오직 페스티벌을 주제로 한 협의체와 논의의 장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사진 자료

